

아동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이 성인 초기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죄책감과 억제 정서조절전략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김희영(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석사과정)
이승은(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박사과정)
김지은(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석사과정)
최민(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석사과정)
김태희(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석사과정)
송주현(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조교수)

연구목적:

성인 초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대표적인 가족 환경 수준의 요인이다. 자녀의 슬픔, 화, 좌절과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자녀는 다양한 정서조절전략을 습득하고 발달시키며(권연희, 이종희, 2005), 아동기에 형성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전략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김은정, 김진숙, 2010).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죄책감(Donohue M.R et al., 2015) 및 억제 정서조절전략과 관련이 있으나(Cabecinha-Alati et al., 2020), 이들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그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 우울과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의 중단적 관계에서 죄책감 및 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전국의 성인 초기 남녀 대학생 435명(여 50.7%, $M_{age}=23.78$, $SD=2.21$ 명)이다. 아동기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Fabes et al.(1990)의 척도를 회고적 척도로 변안한 박유경(2009)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인기의 우울은 Derogatis(2001)의 단축형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죄책감은 수치심과 죄책감 경향성 척도(Marschall, 1994)를, 억제 전략은 De France와 Hollenstein(2017)이 개발한 정서조절전략 척도를 한국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6.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6번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고된 아동기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은 성인기의 우울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죄책감과 억제 정서조절전략은 이들 간의 관계를 각각 간접적인 경로로 매개하였다. 또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의 관계에서 죄책감과 억제의 순차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둘째, 비지지적 반응의 세가지 하위요인(심리적고통반응, 처벌반응, 과소평가반응)이 각각 심리적 요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심리적고통반응의 경우 죄책감($\beta = 0.18$, $SE = 0.05$, 95% CI [0.09, 0.28])을 매개로, 또한 죄책감과 억제를 순차적 매개로 하여($\beta = 0.005$, $SE = 0.003$, 95% CI [0.001, 0.01])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반응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beta = 0.13$, $SE = 0.06$, 95% CI [0.009, 0.2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소평가반응은 우울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느끼는 죄책감과 정서조절전략으로서의 억제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우울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성인기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억제 전략 각각을 통해서도 미치며, 이는 성인기 자녀가 부정적 정서인 죄책감을 느끼게하고 이를 억제하도록하는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게하여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하위 유형의 반응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성인 초기 우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초기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 시 아동기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특성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담과 부모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주양육자의 반응, 죄책감, 억제, 정서조절전략, 성인초기 우울